

“유통구조개선이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

출판연구소 「출판업계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우리나라 출판계 전반의 상황을 밀도있게 분석한 「출판업실태조사연구」가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김병익)와 한양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책임연구원 이강수)에 의해 이뤄졌다. 최근 국내에서 연간 5종 이상의 책을 펴낸 750개 출판사를 대상으로 출판사의 조직과 재무구조, 시설 및 출판·판매실적, 유통구조 경영문제 등 51항목에 이르는 질문사항을 두차례(90.8.3~9.31)에 걸쳐 조사한 결과 몇가지 특징적인 사실들을 요약해볼 수 있다.

근소출판사 급증, 영업의존적 출판경영 등

우선 최근들어 개인회사형태의 근소출판사의 설립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1940년대 창립된 출판사가 0.1%에 불과한 반면 1980년대에 출발한 출판사(51.2%), 1970년대 창립된 출판사(34.9%)가 많았다. 이들은 주로 개인회사 형식의 자본구조를 지닌 독립경영형태를 보이는데, 대표자의 연령층은 타산업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40대(34%)와 50대(32.1%)가 많고, 역사가 오래수록 대표자 연령은 높았다.

출판사의 총 직원수는 5~9명(35.2%) 정도가 대부분인데 5명미만(30.1%)인 곳도 많은 편이고 언론사부설출판사가 비교적 인원수가 많았다. 이들 직원은 대부분 추천(53.4%)에 의해 채용하며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출판사도 31.1%나 됐다. 또한 출판사의 근무연수는 낮은 편이어서 1~3년 미만대가 가장 많았다. 부서조직을 보면 편집부와 영업부 외에는 부서가 전혀 없거나 3, 4명 미만의 영세한 규모를 지닌다. 특히 출판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미술부·광고부·자료실이 없다고 한 출판사가 90% 이상인 데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부원의 빈도는 높아서 영업의존적인 출판경영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10억대 자산규모의 출판사조차 60% 이상이 광고부·미술부·자료실 등의 전문부서를 갖추지 않고 있었다.

출판사직원의 임금수준은 대졸초임이 평균 35.16만원이고, 경력 2년 대졸자가 44.39만원, 경력 5년 대졸자가 57.77만원, 과장급이 58.14만원, 부장급이 76.17만원, 중역이 101.84만원의 수준이다. 하지만 임금수준의 격차가 심해서 언론사부설출판사의 경우 대졸초임이 60만원 이상인 곳도 57.1%나 됐다. 연평균 상여금은 3.2회 지급하나 전혀 상여금이 없는 곳(10.4%)도 많았다. 또한 차량유지비나 연월차수당,

가족수당, 연금, 식대 등의 수당을 지급하는 출판사가 50%이하인 것은 아직도 출판사들의 직원복지수준에 향상의 여지가 많음을 말해준다. 한편 현재 노동조합이 있다고 응답한 출판사는 한 곳도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다는 출판사가 5.1%이며 사우회는 비교적 많이 조직돼 18.7%가 있었다.

출판에 있어 가장 중요한 편집기획에 대한 책임은 개인회사일수록 경영자(62.6%)에게 맡겨지는 빈도가 크고 편집책임자(13.2%) 편집위원(7.4%)의 순이어서 경영자의 결정력이 강하게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편집고문은 고정적으로 있는 경우(32.8%), 일시적으로라도 있는 곳(33.8%)이 꽤 많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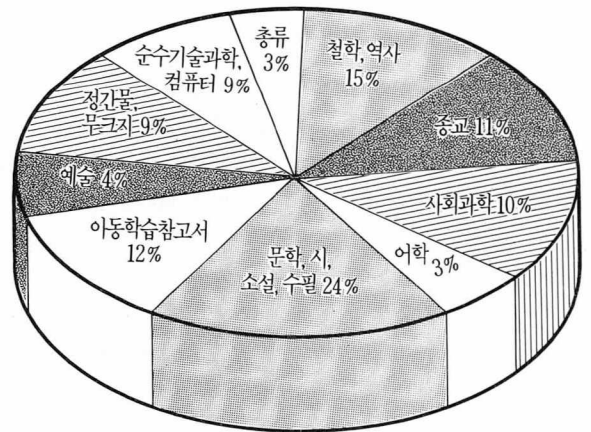
출판종수·발행부수·판매액 등서 양극화

출판사 설립 이후 총 출판종수는 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여 100종 이상(28.9%)이 가장 많았던 반면 10종 미만(23.6%), 10종대(14.3%)도 많았다. 발행부수 역시 50만부 이상이 19.3%인 반면 10만부 미만은 48.9%나 되었다. 1989년도 한해의 판매부수는 1~5만부(33.9%)가 가장 많았고 액수도 1~5천만원 미만(24.3%)의 소규모가 대부분이었으나 5억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린 출판사도 12%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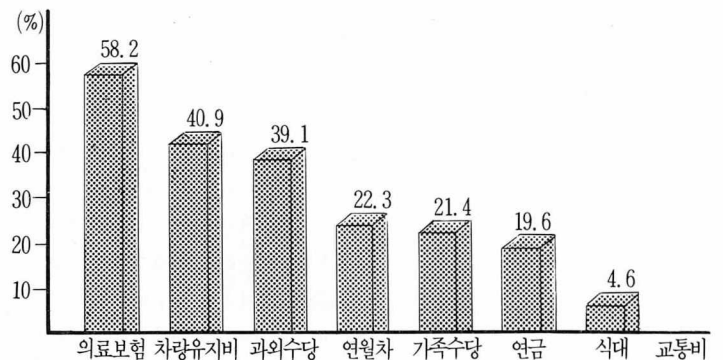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볼 때 출판분야에서는 문학일반(35.1%)이 주류를 이룬다. 출판현황에서도 어느 분야건 10종 미만의 책을 냈다는 출판사가 과반수를 넘으며 전문도서의 경우 대부분이 연간 5종 미만에 그쳤다. 순수과학·어학·역사·사회과학 등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띤 출판사가 적게 나타난 가운데 참고서가 발행부수나 판매액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저작권계약에 의한 번역서 출간의 경험은 한번도 없다는 응답이 76.9%나 됐고, 1종이 15.4%, 2종이 4.5% 등이어서 우리나라 출판사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부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출판사의 재무구조를 보면 자산총액 1억 미만이 가장 많았고(36.8%) 다시 10억 이상에서 갑자기 불어나(14.9%) 역시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5천만원 미만(42.7%)의 부채를 짊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자금조달은 사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 2년간 이용한 실태가 평균 0.93회이고 다음으로 은행(0.91회), 한국출판협동조합(0.39회), 한국출판



● 주력 출판의 분야별 분포



● 출판사 수당 지급 내용

금고(0.37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무실은 10~39평(58.6%) 정도에 대부분 임대(71.2%)로 쓰며 창고 역시 같은 평수의 임대사용이 많았다. 기자제에서는 팩시밀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곳이 전체 응답자의 67%로 가장 높은 보유율을 보였고 복사기(51.0%) 개인용컴퓨터(45%) 전산사식입력기(23.4%) 등의 기계 보유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출판사의 거래내용과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직영서점을 운영하지 않는 출판사가 74.8%인데, 출판사에서 도소매서점을 거치는 정상경로(34.94%)와 직접 소매서점을 거치는 경로(37.32%)가 비슷한 비중을 보였고, 나머지는 직접판매나 통신판매(3.82%), 방문판매(5.8%)로 이뤄지고 있다. 거래방법에 있어서는 위탁방향이 많고 반품은 1~6개월 사이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며 그 비용은 출판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음결제 기간은 1, 2개월 정도로 나타났는데 소매서점직거래의 어음결제기간이 약간 느렸다. 또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광고매체는 신문(49.56%)을 꼽았고 다음으로 잡지(32.1%) 우편광고(12.2%)의 순인데, 광고를 안한다는 곳도 29.2%나 되었다.

한편 출판인들은 경영상 가장 어려운 점으로

자금난(62.7%)을 들었으며 인력난(30.1%) 유통중 도서 훼손(29.4%)의 순으로 꼽았다. 스스로 인식하는 출판분야의 시급한 문제로는 출판유통의 현대화(61.3%)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았고 출판경영의 현대화(36.3%) 출판중합장기대책(34.7%) 출판인력양성(30.1%)의 순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획 비합리적이고, 현대화에 너무 둔감”

이번 조사결과로 드러나는 특징은 출판계 내부에서 늘 지적해왔던 전반적인 출판경영과 기획의 수준이 영세하다는 점과 출판시설이 낙후돼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 대규모출판사와 근소출판사간의 심한 양극화 현상이 자산 규모나 인원, 출판실적 등 전반적인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어 출판의 독과점화 추세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한다. 또한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띤 출판사가 매우 부족한 것과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출판업무의 현대화에 대해 우리나라 출판계가 너무 둔감한 것도 향후 출판업계가 국제시장에 개방됐을 때를 대비해 중요 시해야 할 문제점으로 드러났다.